

사전 공개 정보 PL 열람 가능

◆ 시나리오 트레일러——…

사람의 마음은 항상 구원을 원한다.
갈구하라, 그러면 내려질 것이니라.

그러나 내밀어진 손이 진짜 구원이라고는 할 수 없다.
세상에는 구원을 원하는 사람의 수만큼 신이 태어났다.
그 중 하나가 헤매는 사람들에게 다시 손을 내민다.

키즈나 불릿

『그 손바닥은 옥신거린다』

——유대를 부수고, 기적을 죽여라.

아아, 하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시나리오 제목에 대해》

「호랑가시나무(柊, 히이라기)」라는 이름은 잎의 가시에 닿으면 얼얼하게 아프기 때문에 「아프다」를 나타내는 「疼ぐ(히이라구, 옥신옥신 아프다)」에서 따와 「히이라기」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또, 「疼木」라고 쓰기도 합니다.

◆ 시나리오 핸드아웃(공통)——…

소속 조직: SID(p.116)

당신들은 일그러진 소원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술사를 말소하기 위해 지금 이곳에 존재한다.
둘이서 하나인 탄환(불릿)으로서 당신들이 조직에게 명받은 임무는 동시다발 집단 자살 사건의 조사다.

현장에는 “복음”이 검출되어 기적술사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점쳐진다.

다음 희생자가 태어나기 전에 기적술사를 찾아내서 말소해야만 한다.

[시나리오 테마: 기적술사를 말살한다]

◆시나리오 스펙————…

- 상정 인원수: 2명
- GMC 룰: 사용 가능(타이만 가능)
- 상정 평균 키즈나 수: 2
- 상정 플레이타임: 3~4시간(캐릭터 작성 제외)
- 드라마 턴 수: 2

이 시나리오는 크툴루의 부름 6판 TRPG 시나리오 『[鰐と柁\(정어리와 호랑가시나무, 약칭 이와히라\)](#)』의 탐사자를 컨버팅하는 것을 상정한 가벼운 헌정 시나리오입니다.

『鰐と柁』시나리오 스포일러는 없습니다.

물론 키즈나 불릿 태생 캐릭터여도 일반 키즈나 불릿 시나리오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이와히라 컨버팅으로 플레이하면 상처가 더 벌어진다고 해야할지, 깊어진다고
해야할지……아무튼 그런 느낌입니다.*

본편

◆스토리——…

신흥 종교 단체로 이름을 알렸었던 「해질녘 집」.

신도에게 고액의 헌금을 요구하거나 값싼 물건이라며 속여서 파는 것뿐만 아니라, 신도 그룹이 집단 자살을 일으키는 등 수 많은 사건을 일으키고 경찰에게 검거되어 조직은 해체되었습니다.

교주였던 쿠스노키 류세이는 심복 신도들과 조사에서 도망치던 중, 기적술사에 의한 “복음오염”에 휘말립니다.

신도들은 소멸한 한편, 쿠스노키는 살아남아 기적술사가 됩니다.

쿠스노키는 자신이 살아남은 것을 기적이라 여기고, 선택받은 존재로서 이번에는말로 사람들에게 진짜 구제를 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적술사인 그의 구제는 일그러진 소원에 의해 수 많은 사람이 신앙의 이름 아래에서 희생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기적술사 쿠스노키 류세이를 찾아서 말소하면 시나리오가 끝납니다.

◆도입 페이지————…

[도입 페이지](p.136)는 먼저 마스터 장면「저녁 기도」가 발생합니다.

그 후, [불릿의 일상]과 [사건 개입]을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불릿]이 여러 팀 있을 경우 각자 [불릿의 일상]을 진행한 후 [사건 개입]을 합동으로 진행합니다.

마스터 장면「저녁 기도」

- 장면 발생 조건: 도입 페이지 개시 직후
- 등장 캐릭터: 없음
- 장면 개요: 동시다발 집단 자살 사건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장면 묘사

곧 일몰이 찾아올 주택가. 하늘에는 초저녁의 명성이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주택가 일각에서 남녀 여러 명이 초에 불을 붙이며 기도를 올립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작은 새가 노래하듯이 행복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저녁에 기도하고 다 같이 구원받읍시다. 기적은 소원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이윽고 그들은 손에 쥔 나이프로 서로를 찌릅니다.

계속, 계속, 숨이 끊길 때까지.

시신은 모두 두 손을 하늘 높이 든 채로 사후경직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도 빠짐 없이 죽은 얼굴은 미소짓고 있습니다.

“아아,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말할 것 같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죽어있습니다.

◆장면 종료 체크

- GM이 마스터 장면을 묘사했다.

불릿의 일상

[불릿의 일상](p.136)에서는 [불릿]마다 일상을 연출합니다.

표를 참고할 경우 룰북 p.137에 수록된 [일상 표·장소] [일상 표·내용]을 사용합니다.

롤플레이가 일단락하면 오리카와 카에데(p.118)한테 연락이 오는 연출을 해주세요.

◆장면 종료 체크

- PC가 각자 불릿의 일상을 연출했다.
- PC가 SID 부장실로 향하는 연출을 했다.

사건 개입

PC들이 오리카와 카에데에게 동시다발 집단 자살 사건의 조사를 명령받는 장면입니다.

▼장면 묘사

카스가세키에 있는 경찰청. 청사 지하 20층에 있는 SID 본부.

그 부장실에 불릿이 호출됩니다.

불릿이 방에 들어가면 부장인 오리카와 카에데는 방 벽에 설치된 대형 디스플레이를 가리킵니다.

화면은 집단 자살 사건의 현장 사진을 여러 개 비추고 있습니다.

참혹한 광경이 찍힌 모든 사진 속에서 불릿은 양 손바닥으로 별을 만드는 것 같은 디자인의 마크가 찍혀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대사: 「오리카와 카에데」

“너희들에게 새로운 임무를 내린다.”

(PC가 『鰯と柊』 컨버팅일 경우) “너희랑도 연이 있다고 하면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리 좋은 추억은 아닐 수도 있다만.”

“동시다발 집단 자살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겠지? 그 사건 현장에서 “복음”이 검출됐다.

그리고 어느 신흥 종교 단체와의 관계성도.”

“단체의 교주는 심복 신도들과 도망친 후 현재 실종 상태다. 죽었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고, 어딘가에 잠복한 거겠지.”

“해질녘 집과 거기 교주가 이번 사건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아.”

“너희들의 임무는 교주인 쿠스노키 류세이의 발자취를 쫓다가 녀석이 기적술사이면 말소하는 거다.”

▼동시 집단 자살 사건에 대해

다음 정보는 [사건 개입] 타이밍에 PC에게 모두 전해주세요.

- 동시다발 집단 자살 사건은 고층 빌딩에서 투신하거나 연탄을 쓰는 방법 등 다양하지만, 모두 일몰 전후에 일어났다는 공통점이 있다.
- 일부 집단 자살은 인터넷에서 생중계되었다. 대부분은 경찰에 의해 삭제되었으나 데이터 일부가 SNS 등에서 돌기 시작했다.
- 해당 영상은 나이도 성별도 다양한 사람들이 “저녁에 기도하고 다 같이 구원받읍시다. 기적은 소원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자살을 시도한다.
- 자살 현장에서는 희미하게나마 “복음”의 잔류가 검출되었고, 기적술사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또한 모든 현장은 공통적으로 별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의 태피스트리가 걸려 있었다.
- 별 모티브는 수 많은 사건을 일으켜 경찰에 의해 검거, 해체된 신흥 종교 단체 「해질녘 집」의 로고 마크와 흡사하다. 경찰은 이번 건과 「해질녘 집」에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 「해질녘 집」의 교주였던 사람은 「쿠스노키 류세이」. 현재 실종 상태.

◆장면 종료 체크

- 오리카와 카에데가 PC들에게 동시다발 집단 자살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 오리카와 카에데가 PC들에게 사건 조사를 명령했다.
- PC들이 조사하러 향하는 연출을 했다.

◆여기치 체크

- [사건 개입] 종료 후, 장면에 등장한 PC는 여기치를 1점 획득합니다.
- 도입 종료 후 여기치 체크를 항상 잊어서 메모용으로 썼습니다.

◆ 조사 페이지——…

[조사 페이지](p.138)는 PC들이 사건을 조사합니다.

[조사 장면]의 [조사 표]는 「조사 표·베이식」과 「조사 표·다이내믹」을 써 주세요.

이 시나리오의 [조사 페이지]에서는 마스터 장면이 없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준비된 정보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정보1

●정보 항목명1: 「해질녘 집」 교주 쿠스노키 류세이에 대해

▼개시치: PC 인원수+1

▼내용:

신흥 종교 단체 「해질녘 집」의 교주는 쿠스노키 류세이라는 30대 전반 남성이다. 원래는 복지 관련 일을 하고 있었고 교육 관계자 및 육아 우울증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의 자기 계발 세미나를 개최했었다.

세미나에 대한 상담자의 신뢰는 이윽고 쿠스노키 개인을 향한 광신으로 바뀌고, 쿠스노키 류세이를 교주로 삼은 신흥 종교 단체가 되었다.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동시에 심복 신도들 몇 명과 도망치고 실종되었다.

경찰의 개입과 교주 및 간부들이 실종된 것으로 신흥 종교 단체 「해질녘 집」은 사실상 조직으로서는 완전히 해체되었다.

발자취를 쫓아가면 그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이전 기적술사가 일으킨 “복음오염”에 의한 살인 사건 현장 근처였다. 이 기적술사는 이미 SID에 의해 말살되었으나 현장을 조사하면 무슨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조사하러 가봐야 할 것 같다.

정보2

●정보 항목명2: 이전 “복음오염” 현장에 대해

▼개시치: PC 인원수×3

▼내용:

쿠스노키 류세이 일행이 실종했던 “복음오염” 현장은 교외 주택가 근처에 있는 작고 오래된 교회다. 기적술사에 의해 교회에서 살던 목사 일가가 살해당한 것이다.

이 교회에 대해 조사하면 그곳을 「성지」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SNS 및 소규모 세미나 등을 통해 서로에게 연락을 넣고 있다.

SNS 아이콘 및 세미나 회장에는 별 모티브가 그려진 태피스트리가 반드시 사용되며, 「저녁에 기도하고 다 같이 구원받읍시다. 기적은 소원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라는 문장이 쓰여 있다.

그들은 「성지에서 교주님께 은색의 축복을 내려받은 후, 초저녁의 명성이 반짝일 무렵 기도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 행복해진다」고 믿고 있다.

은색의 축복이란, “복음”을 말하는 것이 틀림 없겠지.

기적술사가 「성지」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빠르게 향해야 할 것 같다.

◆ 최종 결전 페이지——…

[최종 결전 페이지](p.145)는 [릴리즈]와 [결전]을 진행합니다.

릴리즈

[릴리즈](p.145)는 “릴리즈 연출”과 “【여기치】조정”을 [불릿]마다 진행해 주세요.

결전

[결전]은 PC들이 기적술사 쿠스노키 류세이와 결착을 냅니다.

장면 묘사와 NPC와의 대화가 일단락하면 [결전]을 진행합니다.

[결전]의 진행 방법은 P.159를 참조해 주세요.

[종료 조건]은 「기적술사의 전투 불능」입니다.

▼장면 묘사

과거 “복음오염”이 일어난 현장은 교외 주택가 변두리에 있는 작고 오래된 교회입니다.

기적수사에 의해 이 교회에서 일하던 목사 일가가 살해당했습니다.

이 사건 자체는 SID에 의해 은폐 공작이 이루어져, 인근 주민들도 「이전에 살인 사건이 있었다. 범인은 체포되었다」 이상의 정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현재 교회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방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허물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땅이나 건물 권리를 맴돌아 결국 흐지부지됐습니다.

과거에는 기도를 올리던 곳에 있는 것은 남겨진 신 뿐입니다.

불릿이 방문하자 쇠태해져 가는 교회 내부에서 남성 한 명이 웅크려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해질녘 집」 교주였던 쿠스노키 류세이입니다.

불릿의 기척을 느끼자 쿠스노키는 천천히 일어나 기도하듯 두 손을 하늘 위로 올립니다.

쿠스노키를 중심으로 주변에 은색 안개가 채워집니다.

그가 기적술사임이 틀림없다고 확신할 것입니다.

▼대사 예시: 기적술사 쿠스노키 류세이

(PC에게) “안녕하세요. 여러분도 구원을 바라셔서 오셨나요?”

(해질녘 집에 대해 물으면) “예전에는 「해질녘 집」의 교주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의 저는 틀렸어요. 고통스러워하며 구원을 바라던 사람들을 내가 유복해지고자 먹잇감으로 삼았어요……. 결코 용서될 일이 아닙니다.”

“그 날, 은색 안개 속에서 한 번 죽고 다시 살아났을 때, 전 이것이 신이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은 이번에는말로 사람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게 틀림 없어요.”

“그러니 지금의 저는 이번에는말로 사람을 구하기 위해 구원의 은색 축복을 그들에게 내려주는 것입니다. 저녁에 기도하고 다 같이 구원받읍시다. 기적은 소원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 자신을 고통받게 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직접 고통의 근원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아, 하지만 그들은 행복하답니다. 고통의 근원을 기도하는 것으로 없애는데 성공했으니까요.”

(『鰯と柁』 컨버팅인 경우, 교주 PC에게) “그러고보니 당신과 비슷한 사람을 본 적 있어요. 배장교(拝掌教)라는 신흥 종교 단체, 모르시나요? 그들도 우리 「해질녘 집」과 같아요. 구원받고 싶다. 행복해지고 싶다. 그러니 기도한다. 배장교 사람들에게 구원이 내려졌는지는 모르지만……적어도 지금의 저라면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답니다.”

(전투 불능이 되면) “왜……이번에는말로, 사람들을 구해야……내 죄를 속죄해야 하는데…….”

※GM 보충

기적술사 쿠스노키 류세이는 배장교 및 교주와 간부에 대해서 이른바 동업자로 보도 및 배장교의 공식 사이트(있을까? 기도 웹 신청 폼 같은 게 있을지도. 메이비) 등으로 본 적이 있다 정도의 인식입니다. 하지만 역시 교주 PC가 본인일 거라는 생각은 못하고 많이 닮았다는 감상입니다.

◆장면 종료 체크

- 결전이 종료된다.

◆종막 페이즈——…

[종막 페이즈](p.147)는 [키즈나 파괴]와 [귀환 체크] 후 후일담을 연출하는 [사건의 끝]으로 옮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플레이어끼리 정합니다.

[일상 표·장소]와 [일상 표·내용](p.137)을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끝]이 끝나면 세션을 종료하고 [클로즈]로 옮겨 주세요.

에너미 데이터

쿠스노키 류세이			
종별	기적술사	소원	정재
위협도	8+시나리오에서 상정하는 PC의 평균 키즈나 수 (초기 작성이면 10)	생명치	PC 인원수×2
기적			
〈은날의 일섬〉	〈복음홍명〉	〈정재의 기적〉	〈죄기붕괴〉
〈銀刃の一閃〉	〈福音共鳴〉	〈正裁のキセキ〉	〈罪忌崩し〉

▼행동 방침

- 최초의 [라운드 개시]에서 [서포트 PC](단일)에게 〈정재의 기적〉을 사용한다.
- 최초의 [공격]에서 〈복음홍명〉을 사용하고 [생명 다이스]를 [스택]하면서 PC에게 대미지를 입힌다.
- 2라운드 이후에는 〈은날의 일섬〉으로 공격한다.
- PC가 [다이스 롤]로 「1 결과값」을 낼 때 〈죄기붕괴〉를 사용할 것.

▼해설

기적술사 쿠스노키 류세이는 신흥 종교 단체 「해질녘 집」의 전 교주입니다.

「해질녘 집」은 교육 관계자나 육아 우울증 등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의 자기 계발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길한 물건이라 속이고 부당하게 고액의 회화를 팔아치우거나 신도들로부터 고액의 헌금을 모았습니다.

이윽고 신도 그룹이 동시다발 집단 자살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사이비 단체로 찍혀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주인 쿠스노키는 심복 신자들과 경찰의 추구에서 빠져나가려고 도망치던 중, 기적술사의 “복음오염”에 휘말립니다.

신도들은 전부 사라지고 쿠스노키만 살아남아 기적술사가 됩니다.

애초에 쿠스노키는 신앙심 하나 없었으며 「해질녘 집」도 비즈니스일 뿐이었지만, “복음오염”에서 생환한 기적술사가 되면서 자기 자신이 신이라는 망신에 빠지게 됩니다.

과거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며 이번에야말로 사람들을 정말로 구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구제란,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오염”으로 집단 자살시키는 형태로 살해하는 매우 일그러진 수단입니다.

※本作は「からすば晴（N.G.P.）」および「株式会社アーカライト出版事業部」が権利を有する『キズナバレット』の二次創作です。

©2021 からすば晴 / N.G.P. / アークライト / 新紀元社

※이 작품은 「카라스바 세이(N.G.P.)」 및 「주식회사 아크라이트 출판사업부」가 권리를 가진 『키즈나 불릿』의 2차 창작입니다.

©2021 카라스바 세이/N.G.P./아크라이트/신기원사

작성: さくらでんぶ / [오리지널 링크](#)

번역: 묵허(むっ子) @5reNoIHbA10OzuM